

베트남, 단감 시장현황

2023년 6월 27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

○ 베트남 신선 과실류 시장현황

- 유로모니터(Euromonitor)에 따르면 ‘22년 베트남의 신선 과실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.4% 증가한 7,725.8천톤이며, 카테고리별로는 기타 과실류(2,664.5천톤), 바나나(1,807.1천톤), 오렌지 등(1,524.1천톤), 딸기(1.9천톤) 등 순으로 나타남
- 유로모니터는 베트남 신선 과실류 시장이 ‘25년까지 연평균 6.7% 성장하여 9,391.9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< 베트남 신선 과실류 시장규모 >

(단위: 천톤, %)

구분	‘18	‘19	‘20	‘21(A)	‘22(B)	증감률 (B/A)
총계	6,188.8	6,818.3	7,232.6	7,190.8	7,725.8	7.4
기타 과실류 (Other Fruits)	2,172.8	2,324.9	2,462.8	2,420.6	2,664.5	
바나나 (Banana)	1,417.7	1,583.5	1,708.8	1,713.5	1,807.1	
오렌지, 귤 등 (Oranges, Mandarin...)	1,167.6	1,319.4	1,403.7	1,424.8	1,524.1	
자몽 등 (Grapefruit, Pomelo)	642.9	728.0	786.0	769.6	811.0	
딸기 (Strawberries)	1.4	1.6	1.7	1.7	1.9	

* 자료원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

- 베트남은 다양한 열대과일 재배에 적합한 기후로 바나나, 리치 등 연간 약 12백만톤이 생산되며 6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. 또한 내수 과실류 시장의 성장 및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증대 영향으로 수입산 프리미엄 과일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

○ 베트남 단감 시장현황

- 베트남 고원지대(북부 : 목처우/남부 : 달랏)에서 단감을 포함한 감류가 생산되고 있으나, 생산량 등 공식 통계는 확인이 불가하나, ‘부유’ 및 Hong Hac Tri 등의 재래종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베트남 단감은 품질이 높지 않고 현지 농가들의 수익성이 높은 딸기 등 작목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향후 단감 재배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
- ‘22년 베트남의 단감 수입액은 전년 대비 29.5% 증가한 67,432천불로,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67,432천불을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 97.7%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한국(752천불), 뉴질랜드(665천불) 등 순입
- 한국산 단감의 경우 ‘20년 검역해소를 통해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으며, ‘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급감하였으나 ‘22년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 활동 등 재개에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

< 베트남 단감 수입실적 >

(단위: 천불, %)

구분	‘20	‘21	‘22	점유율 (‘22 기준)
총계	141,475	52,060	67,432	100.0
중국	139,839	51,820	65,905	97.7
한국	1,032	116	752	1.1
뉴질랜드	603	122	665	1.0

* 자료원 : GTA

○ 소비 및 유통현황

- 중국, 한국, 뉴질랜드, 베트남 등 단감이 유통되며 시장 점유율은 중국>한국>뉴질랜드 등 순입
- 한국산 및 뉴질랜드산 단감의 경우 대형유통매장, 수입과일 전문 판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나, 가격이 중국산 대비 10배 이상 비싸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. 품질, 안전성 등을 중요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됨
- 중국산 단감은 낮은 단가로 재래시장, 과일 판매점, 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타국산 단감과 비교 시 외관, 맛 등 큰 차이가 없음

중 국	뉴질랜드	한 국(Vin Fruit)
		
20,000~25,000VND/kg (한화 약 1천원~12백원)	399,000VND/kg (한화 약 20천원)	239,000~899,000VND/kg (한화 약 9~12천원)
한국(MP Fruit)	한국(Klever Fruits)	-
		
240,000VND/kg (한화 약 12천원)	899,000VND/kg (한화 약 45천원)	120,000VND/kg (한화 약 6천원)

* 출처: Klever Fruit 등 각 업체 웹사이트 / 한국산 단감 판매처별 가격 상이

○ 시사점

- 한국산 단감은 ‘20년도 검역해소를 통해 정식 수출이 가능해진 품목으로 딸기, 배 등 신선 과실류에 비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, 베트남-중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단감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가격 등 경쟁력이 낮은 실정임
- 한국산 단감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 단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며 중국산 제품과의 구별법 등 병행 홍보 시 효과 높을 것으로 기대

○ 출처

- Cơ hội đang rộng mở để đưa trái cây Việt Nam ra thị trường thế giới. ’ 21.10.8. dangcongsan.vn
- Euromonitor 등

○ 문의처

- aT 하노이지사 최성곡 +84 24-6282-2987